

# IMF Survey

ASIA 21 컨퍼런스

## 아시아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제 2의 성장 엔진’

IMF Survey online  
2010년 7월 12일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한국에서 개최된 Asia 21 컨퍼런스의 개막식에서 아시아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사진: IMF/스티브 제프)

-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컨퍼런스
- 아시아의 경제적 비중 증가를 반영하는 IMF
- 아시아가 다자간 정책 수립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촉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한국에서 이틀 동안 개최된 "Asia 21: Leading the Way Forward(미래를 주도)"라는 컨퍼런스의 개막식에서 아시아의 역할이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 지역의 견실한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2의 성장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대전시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 약 1,000 명의 대표자들과 미디어가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를 하면서, “과거에는 아시아가 성장을 대부분 수출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특히, 유럽과 미국)이 재정 상태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수출 시장이 그렇게 호전될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시아가 견실한 성과를 계속 유지하려면 제 2의(내부) 성장 엔진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세계 경제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금융 위기 이후의 아시아 성장에 대한 추진 요소를 평가하고, 아시아의 견해를 경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컨퍼런스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비디오 환영사로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IMF 총재가 연설을 했다.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개별 국가들의 노력과 병행하여, 이 지역이 미래의 외부 충격으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역 시장의 전반적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합니다”라고 윤 장관은 말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경제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 이미 진행 중

스트로스-칸 총재는 아시아에서 제 2의 성장 엔진을 육성할 것을 요구하는 많은 변화들이 이미 이 지역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예비적 저축의 필요를 감소시킴으로써 민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견실한 사회안전망,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사회간접자본 개량, 소비와 중소기업의 투자, 그리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주요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것을 심화하는 금융부문, 그리고, 필요한 경우, 환율의 유연성 개선이 포함된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세계 경제에 대한 아시아의 비중이 계속 커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이해관계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아시아에 대해 세계적인 경제 위험을 평가하고, 각국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한 협력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국제 정책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의 가치(아시아에 대한)를 증가시킵니다.”

“제가 진정으로 희망하는 것은”하고 운 장관은 말했다. “IMF 와 한국이 제휴하여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IMF—아시아의 “세컨드 홈”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동력으로 부상했고, 아시아의 경제적 중요성이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스트로스-칸 총재는 말했다. “그러나 세계는 변화하고 있고, 아시아가 성장 및 번영하는 방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린 결정이 향후 10 년 동안 아시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IMF 를 아시아의 “세컨드 홈”으로 생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했다. 또한 187 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 기구의 쿼터 중 5 퍼센트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신흥시장과 대표권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이동시킴으로써 아시아의 점유율을 증가시키는 것과 동시에, [more Asians in the Fund](#) 을 통해서 아시아 국가들이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일본 출신의 [Naoyuki Shinohara](#) 부총재와 최근에 임명된 중국 출신의 추민 총재 특별 고문을 가리키면서, “이러한 변화는 IMF 의 고위층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트로스-칸 총재는 특히 경제 및 금융 위험에 대한 분석을 향상시키고, 국제 정책 공조를 촉진하고, 이른바 세계 금융 안전망(체계적인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들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제도로서, 11 월에 완결 예정)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IMF 가 아시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G-20 의 역할

주요 20 개 선진국 및 신흥시장국(G-20)의 의장국이 된 한국은 11 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에 앞서서 이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은 G-20 의 의장국이 된 최초의 신흥시장국이다.

아시아 지역의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저명한 학자, 상업은행가, 금융 전문가, 언론인들이 참여하는 이 컨퍼런스는 세계 경제 위기에서 신속하게 회복된 아시아, 금융부문 문제, 아시아와 IMF, 이 지역의 저소득 국가들, 아시아 통합에 대한 전망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다.

“실수를 하면 안됩니다”라고 윤증현 장관은 언급했다. “지금은 아시아가 새로운 상황으로 인해 괄목할 만한 발전의 다음 단계를 추진할 새로운 성장 엔진을 육성해야 할 때로서, 아시아와 IMF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시작해야 합니다.”

윤 장관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다룬 주요 주제가 전세계에서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IMF 수석 경제학자인 올리버 블랜차드는 많은 청중들이 참석한 이 컨퍼런스의 사이드 세션에서 세계 경제의 일부를 위협하는 체계적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IMF가 한국과 협력하여 영향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는 방법(지역 금융기관들과 IMF 사이의 협정 체결 가능성을 포함)을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아시아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스트로스-칸 총재는 아시아의 견실한 성장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에 발생한 유럽의 재정 위기를 포함하는 하방 위험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했는데, 이것은 아시아의 정책입안자들이 추가로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과 관련된 주요 문제에는 자본유입의 급증, 그리고 이와 관련된 경기과열과 신용 및 자산 버블을 관리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포함된다.

BBC의 앵커인 닉 고윙이 진행을 맡은 아시아가 미래에 직면할 문제에 대한 총회에서, 패널리스트들은 유럽의 성장 정체와 “더블딥 경기침체”의 위험(비록 희박하기는 하지만)으로 인해 아시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토의했다. 홍콩 국제상공회의소의 빅터 풍 명예회장은 무역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생명줄이라고 언급했다.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실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도하라운드가 타결되면 전세계에 3,000억 달러의 경기부양 효과가 발생한다.

아시아의 은행들은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금융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금융위기를 비교적 쉽게 헤쳐 나왔으나, 토요타 금융 서비스의 에이지 히라노 경영부사장은 “성장이 많은 잠재적 문제들을 감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금융부문의 개혁을 포함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아시아가 지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와 IMF에 대한 별도의 세션에 참석한 연사들은 이 지역이 현재의 위기를 다른 지역들보다 쉽게 극복한 것은 1997-98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기간 동안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의 국제재정부 차관을 역임했고 이

기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에이수케 사카키바라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IMF에 공을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금융위원회의 진동수 위원장은 서양 경제의 침체가 아시아에 과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인도 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Y.V. 레디도 이 점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유럽과 중국의 경기가 동반 하락하면 “이중의 재난”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기적으로 볼 때, “성장의 지속 여부는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달려있다”고 풍회장은 주장했다.